



『환경관리는 발생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관리에 술선수범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친환경적 기업경영을 하는 기업체에 대해 「제1회 경기환경그린대상」을 시상했다.

수질부문 4종에서 대상을 받은 한국와이어스(주). 이 업체는 공장가동보다 환경관리를 우선시 하는 회사이다. 특히 자율적인 환경관리가 유독 잘 이뤄지고 있는 업체로 소문이 자자하다. 이에 본지는 4종 사업장이지만 스스로 환경오염제거 효율을 제고하고 있는 이 회사 환경관리인 한기홍 대리를 만나 보았다. [편집자 주].



한국와이어스, 필자에게 있어 회사이름도 낯설고 무엇을 만드는지도 자세히 모른 채 근로 당정동에 있는 당회사를 찾았다.

잔디밭을 중심으로 깨끗한 공장건물과 정돈된 모습들이 '경기환경그린대상' 수상업체임을 말해준다.

4종업체답게 아담한 사업장을 가로질러 사무실에 들었다. 벌써 봄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2월 끝이지만 쌀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온도에 냉기가 묻어있다. 대체로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직원들을 보니 평상시에도 에너지절약이 몸에 베어있는 듯 싶다.

실무환경관리 담당자 한기홍 대리와 정규영 공장장이 반갑게 맞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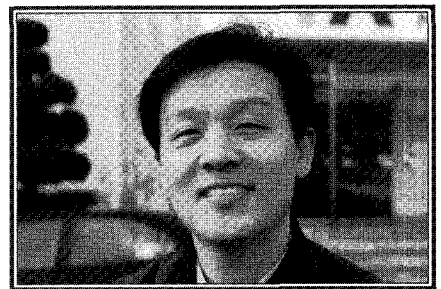
먼저 수상을 축하한다는 말에 "대부분 대기업이 수상하는 환경 관련 수상을 4종업체인 회사가 받았으니 큰 영광입니다. 누구보다 여기 한 대리가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공장장은 말한다.

한국와이어스는 1982년에 미국 사이나미드社와 유한양행이 합작하여 만든 유한사이나미드(주)로 시작하여 99년 9월에 의약분업에 따른 제약부문시장 경쟁력 강화 시책에 따라 한국와이어스(주)로 사명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4년에 제약공장의 배출시설 가동을 시작하고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모든 분석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개선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1990년 화학공장 신설시 활성오니 처리시설을 증설하였다. 화학공장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폐수처리용 에멀전형 고분자 응집제 및 유기 응결제를 생산하여 싸이텍 코리아(주)를 통해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안전과에서 수행하던 환경관리 업무를 94년부터 품질, 환경부로 이관하여 Data에 의한 환경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이것에 기본이 되는 것은 발생부서로부터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생산공정마다의 BOD, COD 및 SS 등의 부하를 줄이는 협조 없이 완벽한 폐수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생물 활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BOD, COS 부하를 줄이기 위해 반응기 초기 세척수를 다음 LOT의 램량 조절용 희석수로 재활용 함으로서 큰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환경 안전 교육이란다.



환경관리의 성공여부는
환경부서의 노력여하보
다는 생산부 등에서 악성
폐수 배출금지, 배출량
최소화 등 원천적인 관리
가 될 때 비로써 최상의
환경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산부
에서 일했던 제가 환경관
리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공장 전직원
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
는 것입니다. 즉 우리회
사는 전 사원이 환경관리
인입니다

교육과 개선을 통한 자율적인 환경관리는 국가의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한 친환경적인 기업경영에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본사의 환경, 안전, 보건에 관한 감사와 경영진의 환경마인드가 직원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후대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우리의 환경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때만 공장가동이 가능합니다.” 라고 공장장은 말한다. 이런 업체의 환경관리 중심에서 있는 한기홍 대리, 고분자 응집제 및 유기 응결제를 생산하는 업체의 특성상 쉽지 않았을 폐수처리에 대하여 “초창기에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하루 하루가 다르고, 해외공장과는 조건이 틀리고, 국내 다른 공장과는 제품이 상이하여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그는 그 때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단다.

어떻게 극복했을까? “환경관리인 협의회가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환경을 잘 모르던 터라 어렵기만 했었는데 협의회 동료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작은 조언이 제게 큰 도움이 될 때 새삼 경험자의 노하우의 힘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협의회 일에 적극적이다.

“협의회 세미나나 기타 모임보다는 친목도모의 자리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살아있는 정보였다고나 할까요.”

협의회를 톡톡히 활용한 셈이다.

한국와이어스는 3년 마다 본사로부터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감사(2주일)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 환경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환경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환경관리의 성공여부는 환경부서의 노력여하보다는 생산부 등에서 악성폐수 배출금지, 배출량 최소화 등 원천적인 관리가 될 때 비로써 최상의 환경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산부에서 일했던 제가 환경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공장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회사는 전 사원이 환경관리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한 대리는 부서장을 포함하여 3명이 환경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장 전직원의 환경의식을 강조한다.

그래서 한국와이어스에서는, 매일 일과 시작시 생산 현장팀과 환경관리 담당자간에 폐수 발생현황, 종류, 배출시점 및 폐수 처리장 현황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6년 전 회사 방침에 따라 환경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계기로, 환경과 인연을 맺은 한 대리는 “지난 아기가 스스로 걸음마를 할 때 좋아서 웃는 것처럼, 저 또한 환경에 대해서 조금씩 흥미를 느끼고 환경인이 되어가고 있을 때 자신이 대견하고 좋아집니다.” 라며 일하는



즐거움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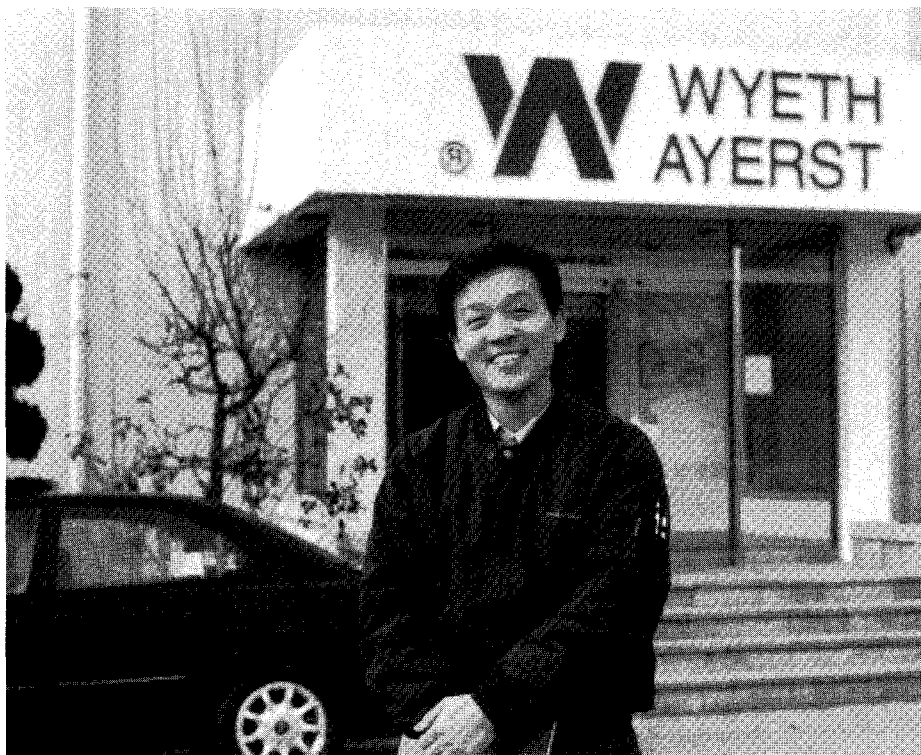
“환경에 대해 초보자였을 때, 적극적인 환경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공장장님과 에밀전형 고분자 응집제를 연구 개발하면서 직접 현장실습을 통해서 검증하고 Data를 분석하시는 부서장님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 경영진의 높은 환경의식에 늘 감사한다.

스스로 지속적인 실험과 Data 분석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말하는 그는 아직 많은 것의 부족함을 인정한다.

폐수처리 약품인 고분자 응집제를 제조하는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이 되어 환경그린대상을 받은 것은 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깨끗한 지역환경 만들기에 일조하는 것이 환경관리인으로 있는 동안 그의 목표이기도 하다.

어느 업체든 환경관리의 문제점은 있기 마련이다. 회사 내의

“성실과 정직이 환경관리인의 소양이라면, 최고의 관리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관리인의 의무입니다.”



폐기를 분리수거, 효과적인 미생물 관리, 슬러지 감량화 등 가까운 것에서부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

“성실과 정직이 환경관리인의 소양이라면, 최고의 관리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관리인의 의무입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자신의 능력부터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대변하는 그를 보며 필자는 잘되고 있는 업체 중심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다.